

###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

# ‘셀 코리아’ 우려에 “지정학적 요소 해소되면 안정 찾을 것”

코스피 2% 이상 ↓... 2600선 위협  
外人 2746억, 기관 2934억 순매도  
“주식·환율 맞물려 오버슈팅 상황  
과도한 변동성 줄어 들 것” 예측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 급등 기조에 ‘셀(Sell) 코리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요소가 해소되면 환율도, 외국인 주식 매도세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외환시장에서 알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에 닿았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는 2022년 11월 8일(1406.5원, 종가 기준)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코스피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며 2600선을 위협받았다.

특히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연일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16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8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1

매각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746억원, 기관은 293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앞서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선 지난 12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7억원 순매도했고 1380원을 돌파한 지난 15일에는 2554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주요 대장주 중 하나인 삼성전자도 오후 장중 7만9400원까지 내려나

폭을 키우며 8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원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2거래일 만이다. 이 역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의 순매도

추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상승구간에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인 외국인들이 리스크 요인이 커지자 매도로 수익을 확정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줘야 한다고 예측하면서도, 지정학적 이슈만 해결되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1400원대 환율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환율이 1300원 중반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2분기 내로는 그 이하로 내려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며칠 사이 전성요인으로 낙폭을 크게 보였으나 추가적으로 전성이 확전 되지 않으면 더 큰 낙폭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과 환율이 맞물려 오버슈팅이 일어난 상황인지라 지정학적 이슈가 잠잠해지면 과도한 변동성은 줄어 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을 기록한 가운데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는 코스피 하락폭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진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원화약세 현상만 없다면 조만간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美 반도체株 약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삼성전자 2.28%, SK하이닉스 4.48% ↓  
중동지역 긴장감에 금리인하 전망 후퇴  
美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일제히 하락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이자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시장이 혼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28%, SK하이닉스는 4.48% 떨어지면서 반도체주 반등 기대감을 약화시켰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들어 큰 폭



삼성전자.

으로 상승하면서 ‘8만전자’에 이어 ‘10만전자’까지 언급됐다. 지난 4일에는 8만5300원을 돌파했으며, 8일에는 장중 8만6000원까지 치솟으면서 가파



SK하이닉스.

른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중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대내외 악재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SK하이닉스는 4일 전인 12일만 해도 장중 19만1400원까지 터치하면서 ‘20만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는 기존 최고가인 19만500원을 갈아치운 기록이기도 하다. 다음 거래일인 15일에도 종가 기준 18만82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6일에는 외국인이 2628억원을 순매도하면

서 전장보다 4.48%나 급락했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힘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2.5%), 브로드컴(-2.5%), AMD(-1.8%) 등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인해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0원을 터치했다가 1394.5원에 마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추가 상승 혹은 불안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서학개미,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저가매수’ 공략

### 해외주식 Click

美 금리인하 불확실성 커지자  
엔비디아 7207만달러 순매도  
테슬라 7235만달러어치 순매수

올해 초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던 엔비디아가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테슬라는 다시 순매수 종목 1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4월 9일~15일) 엔비디아를 7207만달러 순매도한 반면 테슬라를 7235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급등세를 탔던

인공지능(AI) 반도체주 대신 올 초 250달러 정도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로 최근 160달러선까지 밀려난 테슬라를 저가 매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CEO가 올해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1.5배의 수익을 거두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을 1460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인한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68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 4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 침체로 테슬라는 전 세계 인력의 10%를 줄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 이번 해고 인원은 1만4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슬라 성장세에 회의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이번 정리해고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 전체에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해졌고 성장 전망이 둔화된 가운데 안타깝게도 비용 절감을 위해 테슬라가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테슬라가 앞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국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이벤트

한투운용, 내달 30일까지 가입 행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달 30일까지 한국포스증권과 ‘한국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16일 밝혔다.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5대 대표그룹과 그 계열사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12월 설정됐다. 인도 5대 대표그룹은 ▲타타그룹 ▲릴라이언스 ▲인포시스 ▲HDFC은행 ▲바자즈다.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정보 기술 기업부터 에너지, 금융, 경기소비재까지 다양하게 분산돼 있다.

인도 경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모디노믹스(Modinomics)’ 정책 아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는 세계 5위 수준(약 3조3851억 달러)에 달하고, 2023~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친기업적인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꼽힌다. 이달 진행되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예상되는 만큼, 모디 노믹스로 인한 인도 경제 및 5대 대표그룹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한국투자인도5대 대표그룹펀드에 가입 시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없이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한국 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가입은 현재 9개 판매사에서 가능하며, 이 중 한국포스증권에서는 ▲S클래스 ▲S-P클래스 ▲S-R클래스를 판매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